

유족에 안치비 전가...구례군 공설장지 '꼼수 외주화' 공분

郡, 안치업무 13년 직영...2024년 중단
시설 장례식장 전담 이후 20만원 징수
민선 8기 당시 조례 개정도 없이 전환
전남광주 他공설장지 11곳은 무상운영
郡 "개인 거래" 해명...근거 제시 못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공설자연장지 안치(하관) 업무를 파행 운영하며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13년간 무상 제공되던 필수 복지 서비스가 내부 수당 갈등으로 중단된 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시설 업체를 통한 '꼼수 외주화'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 공설자연장지는 1만7천32㎡ 부지에 유골 8천500구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2011년 개장했다.

개장 이후 2024년 6월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 2명이 안치 업무를 전담해왔다. 유족들은 40년 기준 30만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안치 비용 등 추가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때인 2024년 군의 수당 감축

지침에 따라 공무원 주말 근무 수당 편성이 불발됐고 군은 주말 기간제 2명을 '땀집식'으로 채용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지 사용료 유용, 묘적부 관리 방치 등이 발생해 군은 지난해 12월31일 기간제 채용을 철회하고 기존 공무원 시간의 근무수당을 일부 복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치 업무가 2024년 7월부터 구례 지역 장례식장 3곳(구례산립조합장례식장, 구례병원장례식장, 새미소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떠넘겨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안치 용역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시설 장례식장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 등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용료는 시설물 조성 비용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례군에도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20만원에 달하는 안치 비용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대신 군은 조례 제14조 5항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비용 징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사안이 군의회

동의를 거치는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뀐 셈이다.

결국 무료 안치 업무가 시설 장례식장의 유료 용역으로 전락하면서 군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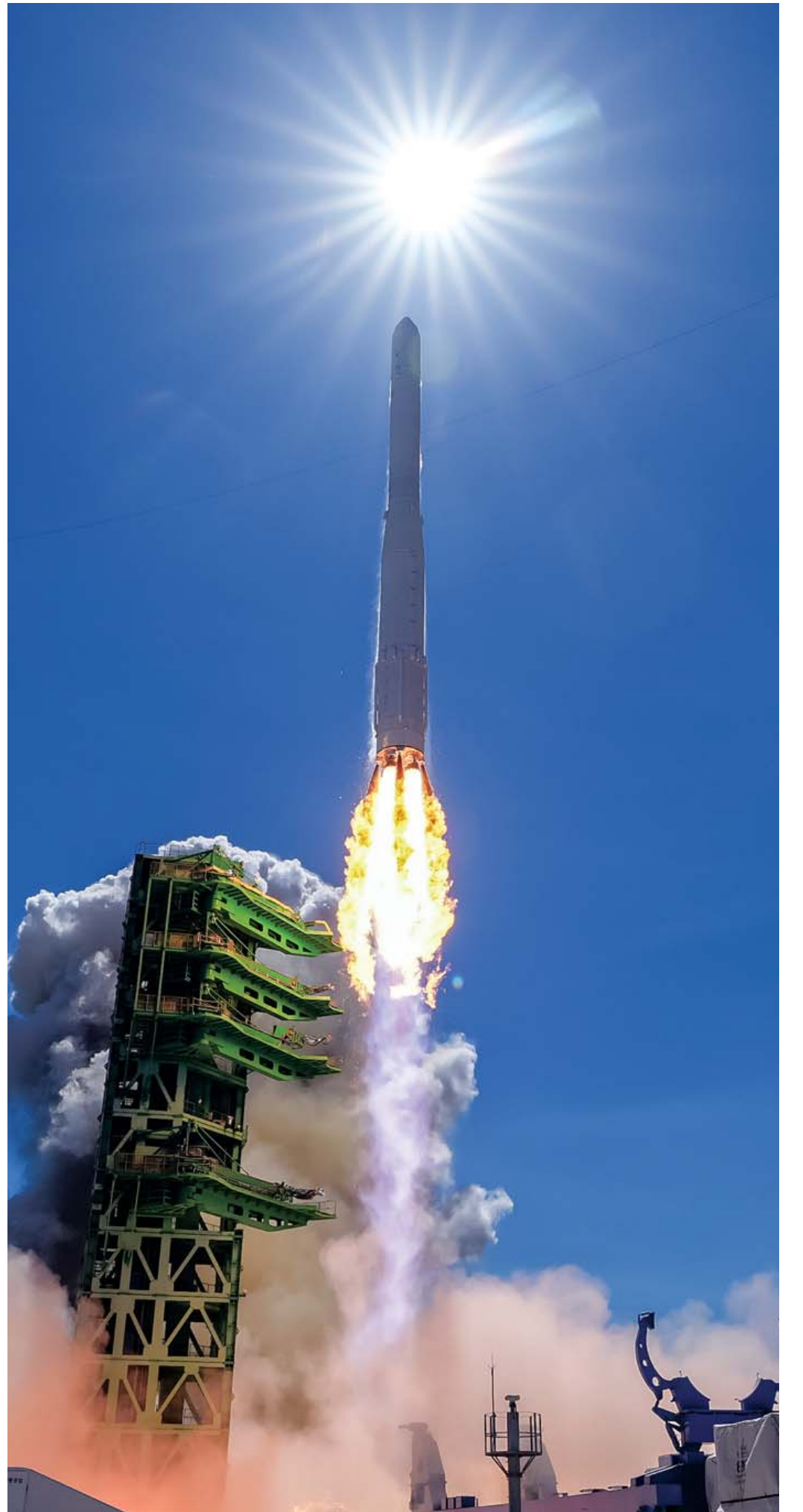
무엇보다 전남광주(해남·광양·영광·담양·진도·순천·완도·장흥·여수·고흥·광주 북구)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설자연장지 12곳을 확인한 결과, 구례군의 운영 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간 위탁 중인 해남군의 경우 하관 시 18만~26만원의 비용을 받지만 조례를 기반으로 징수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마을 공동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순천·영광·고흥 등 직영 시설은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외에 별도 안치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구례읍 주민 A(40)씨는 "내부 수당 갈등 때문에 왜 영결의 슬픔에 잠긴 군민이 기존 복지 혜택을 박탈당하고 생돈을 써야 하느냐"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놓인 유족들을 불모로 잡은 행정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례군 관계자는 "안치 비용의 경우 유족과 장례식장 사이의 개인 간 거래로 공무원들이 안치 업무를 전담해야만 하는 명문상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명하면서 안치 비용 군민 부담을 뒷받침할 법적·조례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우주강국으로 힘찬 비상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군집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수송 역량 입증 '민간 상업 서비스' 가속도
2-6호 모두 교신...큐브위성 1기 미분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관련기사2면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으로 발사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린 누리호는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며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였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누리호는 우주항공청이 이날 오전 예정했던 시각인 오후 12시25분에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위성 15기를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날 누리호는 1단,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2단 분리에 이어 초소형 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

으로 1기씩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누리호 성패를 가르는 잣대는 초소형 군집위성들을 목표 고도인 570km 기준 오차 범위 15km 이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들 위성은 576km에서 분리됐다.

누리호는 기존 계획 대비 1단 엔진은 2초, 2단은 4초, 3단은 9초 가량 짧게 점화했는데, 예측 성능 범위라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후 1시8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주탑재 위성 중 하나인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42분 4호기, 오후 3시27분 3호기, 오후 4시18분 2호기와 순차적으로 교신한 데 이어 오후 5시52분 5호기까지 교신을 마치며 모든 위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 10기 중에는 퀴터니언이 개발한 위성 1기를 제외한 9기가 사출됐다. 우주항공청은 애초에 10기를 모두 분리했다고 밝혔으나, 브리핑에서 내용을 반복했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와 발사체 상용화는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두 번째 발사로, 누리호 검증용 넘어 민간 주도 전환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1~3차 발사와 달리 4차와 5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작업을 총괄했다.

5차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투입되는 민간 관계자도 늘어났다.

우주청이내년하반기에 실시할예정인 6차 발사에서는 단 조립 장소도 기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화에어로스가 순천에 구축한 단조립장으로 바뀐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6차 발사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2025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누리호를 발사해 신뢰성을 더욱 향상하고 민간 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출발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